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킹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김정완 사장님

동계올림픽이 폐회된 이후로도 아직 그 감동과 여운이 남아 어딜 가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던 소식으로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대회 기간 중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느라 자정을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 아직도 재방송이나 특집프로그램에 눈이 가는 것을 보면 스포츠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동계올림픽까지도 우리나라는 우리의 체격조건에 맞는 쇼트트랙 스케이팅 경기에서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 초반에 세계 상위권 입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자 전문가들은 동양인들이 몸이 가볍고 코너링이 좋아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반면에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경주에서는 서구인들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단언하였는데, 이마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무색해지는 선전이 이어지자 전세계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몰락, 창의성보다는 요령 위주의 편협일률적인 사고육 제도하에서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우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성과가 군사적이고 강압적인 훈련과 인생역전을 위한 험그리 정신의 결과라면 이제는 스스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금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루어 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제철소나 조선소의 건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무시했던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세계 최고수준의 IT/통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인 특유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방법은 다들지 몰라도 한국경제의 눈부신 경제성장이나 금번 동계 올림픽에서의 경이적인 성과의 이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향한 도전정신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꿈을 가진 선수들이나 비전을 가진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내가 2006년 KC코트렐에 근무를 시작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도 바로 임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바탕이 되었기에 2005년에 매출 668억원 영업이익 25억원에 불과하던 중소기업이 2008년에는 매출 1,823억원 영업이익 133억원을 시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 고무된 직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으로서 존폐의 기로에 섰던 회사들을 회생시킴으로써 기업회생의 연금술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두칠 사장의 말을 빌리면 경영자와 직원들이 '우리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 회사의 절정이며 그때부터 그 회사는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갈밭을 달리는 자전거와 같이 조직 전체가 지속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계속적으로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KC코트렐도 2009년도부터 이미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종합환경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창의적인 자세로 원가절감에 치열하게 도전함으로써 수주 경쟁력 및 원가구조를 혁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CC20 Project가 KC코트렐 고유의 열정을 바탕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강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마인드와 업무처리 방법도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업무량과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매우 한정적인 물적,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관리기법이나 업무처리절차를 귀찮다고 소홀히 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성장을 위한 높은 벽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쁘다고 업무를 대강 처리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사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끝까지 완결하는, Detail까지 중시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이 자리잡을 때 강한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종합환경기업으로 성장하는 KC코트렐을 꿈꾸며 간절히 원합니다. 스포츠에서 선전 하는 선수들처럼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다 함께 열정적으로 도전합시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이태영 사장님

### \* KC코트렐 CEO 메시지

지난 3월8일 KC코트렐 CC20 미팅에서, 이태영 사장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DTC 등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CC20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예정이오니 과감하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2. TFT와CFT의 활동에서 CFT의 참여가 저조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아이디어의 추진은 CFT인 것 같으니 아침에 팀장님들과 PM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CC20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1-2개월 동안 현업에 불편이 있더라도 CC20의 진전이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현업을 챙기시는 팀장님과PM께 요청 드립니다.

\*CC20란, 지난 호 소개하였던 KC코트렐 원가절감 프로젝트로 각 사업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TFT이 추진 중이다.

## 이달우 회장님 대만현장 방문기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지난 2월 25일 이달우 회장님과 이재영부사장께서 Hsinta(興達) 및 Talin(大林) 발전소 현장을 방문하시었습니다. 1990년 당시 각각 KC의 사장님과 대만 지사장으로서는, KC 최초의 해외공사를 수주 및 공사를 진행하던 주역이었기에 두분의 방문은 남다른 감회가 있으셨습니다.

현재는 800MW급 발전소 증축을 위해 토목공사가 분주한 Talin발전소는 두분을 위해 발전소장이미리 준비한 동선을 따라 옛날 KC가 설치한 ESP 상부까지 안내를 하였고, 또한 증축부지를 볼수있는 전망대에서 KC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도 ESP가 좋은 성능으로 운전이 된다는 설명에 모두 흐뭇한 마음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다소 내부동선이 길어서, 피곤한 오전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현재 KC가 대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해외 첫 탈황시공 및 최대 Side Rapping Type ESP의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Hsinta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처장, 발전처장을 차례로 만나 환담을 나누셨고, 대만전력 최대의 관심사인 납기 준수에 대한 요청 및 이와 관련한 그간의 경험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20여명의 한국/현지 직원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20년 전 대만전력의 시공처 현장직원인 吳謨傳과장과 郭陵泉과장 및 당시와 현재의 집진기 설치 외주업체 張豐村 사장이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오랜 우정을 나누었고, 20년 전의 추억과 현재의 현황 등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한국직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평소의 KC 창업주의 경영철학 및 현장의 값진 경험을 잊지 않고, 전해 주셨고, 무사히 조기 완공에 대한 건배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고량주 및 대만의 음식을 즐기시고, 피곤하신 일정에도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보고, 아직도 20년 전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심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공사가 무사히 완공되면, 다시 방문해 주실 것을 직원들 모두 기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990~1992 Hsinta #1,2 Talin #3,4 (대만 남부)  
 1993~1995 Shenao #1.2.3 (대만 북부)  
 2000~2003 Taichung #9,10 (대만 중부)  
 KC가 대만 발전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Clestra Hauseman in Australia, Opening the showroom early in March

Clestra Hauseman has opened its newest showroom in Sydney, Australia. The showroom is located in The Rocks, which was the first colony of Australia. The showroom is architecturally designed and showcases all products in a beautiful environment. Using designer furniture and lighting we have managed to create a space that speaks of class and quality directly to our target audience. The space acts as both a showroom and a working office for the staff at Clestra Australia.



Celebrate the launch of Clestra products in Australia, hosted by National Manager, Tim Burndred, along with global representatives of the brand.

Experience the sustainable advantages of Clestra's prefabricated, demountable and reusable partition systems, and view the world-class glass, steel and composite range in situ.

Thursday 4 March

Clestra showroom  
Suite 7, Ground Floor, 88 Cumberland St  
The Rocks

Cocktail Showroom Launch: 6 – 8:30pm

Celebrate the arrival of Clestra with French champagne and cuisine, inspired by the brand's prestigious heritage.

Additional events:

**Breakfast: 8 – 9:30am**

Enjoy French breakfast refreshments and a short discussion on the Clestra product range

**Lunch: 1 – 3pm**

Hear a testimonial from a member of the design industry who has embarked on a global contract with Clestra, while enjoying French wine and cheese served by a sommelier

RSVP by Friday 26 February to [clestra@indesign.com.au](mailto:clestra@indesign.com.au)  
Please indicate your event preference on your RSVP.  
You may also wish to attend more than one session.

Media Partner  
**INDESIGN**



Showroom in Sydney



◀ Invitation letter  
▶ Excom members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 KC인발그린에너지, 일산 킨텍스에서 엑스포 참여

KC 인발 그린에너지는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0 세계 태양광 엑스포에 참여 하였습니다. 세계 태양광 엑스포는 한국 유일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로서 국내외 약 400개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가 참가 하였으며, 약 50,0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 하였습니다. 전시회는 토털 태양에너지 전시관, 셀/모듈 전문 전시관, 소재&부품 전문 전시관, 태양광 생산&검사장비 전문 전시관 및 태양광 전력 시스템&시공 전시관등과 같은 전문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태양에너지산업의 동향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KC 인발 그린에너지는 이번 전시회에 태양광 인버터, BIPV 모듈, 그리고 지붕형 박막 모듈을 전시 하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 약 5,000명의 고객이 저희 부스를 다녀 갔으며, 태양광 인버터와 BIPV 관련되어 약 500여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 국내 태양광 업체에 약 1MW 정도의 인버터 판매가 가계약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토대로 KC 인발 그린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업계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 KCMS, AWO(Action WorkOut-부제: Do it now!)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2008년 10월 28일,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향한 '무한 도전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피상적으로 들어만 왔던, 우리와는 무관할 것만 같았던 "LEAN"이란 높디 높은 고지를 향해, 우리의 향방(方向)을 조심스레 가능하면서, 어설픈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시도는 조금씩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

바쁜 현업(現業)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을 'Lean Day'로 정해 꾸준히 인식교육과 3정5S (3정:정위치/정품/정량, 5S:정리/정돈/청소/정결/습관화) 활동, 그리고 잔재 활용의 일환인 적찰(Red Card)활동을 했으며, 활동의 주최인 멘토(Mento)들의 숏선수범, 사내 협력업체들의 동참 속에 '의무즉실천'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살며시 'LEAN의 참모습'에 맞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이은 시행착오와 밀물처럼 엄습해 오는 역경을 멘토를 주축으로 한 KCMS사업부 전원의 열정(Passion)으로 하나씩 풀어내며, 2009년을 '변화와 혁신'의 원년(元年)으로 장식하여, 고객만족 구현의 새 장을 열었다. 2010년, 2년차 'LEAN'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던 중, 맥큐스( McQs)의 'TOP'를 만났고, 'CC20'의 이름으로 지난 2월 8일, 'LEAN'의 새로운 기법인 AWO (Action Workout, 굳이 의역하자면 "집중 의무 즉 실천")의 Pilot 활동을 시작했다.

각 분임조별로 계획한 Mission을 3일 내에 완수해야하는 목표치는, 이미 LEAN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도 달성하기 버거운 과제이기도 하였지만, AWO활동 현장의 추위가 우리를 고통과 긴장의 극한으로 몰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KCMS는 해냈다. 우리의 열정으로 추위는 물론, 구태의연, 지레짐작, 불가능한 사고, 그 모든 것을 녹여 버렸다.

Mission 완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3일간의 땀방울과 단합된 의지로 불식시켰고, 그 결과물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뜨거운 감동의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배려와 Leadership'

McQs와 CC20 Full Time Member, 그리고 분임조원들은 AWO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

뚜렷한 목표의식, 일사 분란한 동참, 기쁨범벅 속에 함박 웃음, 밤늦은 퇴근 길의 자만감(自滿感)으로 목표 달성이 예고되었고, 마침내 우린 해냈다.

절묘한 조화다. McQs와 KCMS.

현재 우리는 AWO 활동을 통해, My Machine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할당된 자신의 기계와 작업장을 자신의 것처럼 청소하고 Painting하며 몸소 관리하기 시작했다.

처음 Pilot 활동에서는 팀원들의 의지를 담아 '신바람'/'불꽃'이란 분임조명을 다음 단계인 1st Wave과정에서는 대상 기계와 작업을 연상하게 하는 '쇠구슬'과 '공작새'라는 분임조명으로 활동하며, 연이은 분임조 활동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불황기 10배 성장,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회의 성공신화를 창조한 일본 전산(電産)의 경영 노하우에서 알 수 있듯이,

**즉시 한다(Do it now!)**

**반드시 한다 (Do it without fail!)**

**될 때까지 한다 (Do it until completed!)**

우리는 현재 이 말이 체득된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에 대한 소중함이 을 알게 되었다.

이미 습관화된 3정5S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AWO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KCMS가 Global Manufacturing Service Center가 되는 날까지.

그리고, 방문하시는 우리의 고객들이 한결같이 KCMS 변화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날까지...

**Clean KCMS! Change Culture KCMS! Fighting! (다음 장에 사진이 이어집니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AWO활동모습



### AWO camp 소감

“짧은 기간에 문제점, 개선목표를 정확히 잡아 일사분란 하게 추진하여 얻은 결과에 가슴이 벅차다.”

“어떠한 역경, 과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면 되고, 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일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KC의 일원으로써 금번 AWO Pilo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됨을 팀의 일원으로써 강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으나 팀원들이 하나로 뭉쳐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기계가 새것처럼 변화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뿌듯했다, 깨끗해 지면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불만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료들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AWO 활동이라고 생각함

“고정관념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지 않고 행동 안하는 것 뿐이다, 아자아자화이팅~~~~!!!!”

“2박3일 동안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AWO를 완료한 후 기존 작업자인 하디와 아판다가 설비가 너무 예뻐져서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얘기에 그간의 피로가 말끔히 없어졌다.”

“직접 하면서 AWO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던 좋은 경험이었다”

“안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다”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발전 5사, CO<sub>2</sub> 포집기술 성공여부 '촉각'

세계 최초 건식 포집방식 이달중 실증단계 착수  
발전 5사 "1년간 기술 검증 거쳐 추가 건설 결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중 포집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달 중순 이뤄지면서 유연탄을 원료로 발전하는 화력발전사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식 흡수제를 이용한 발전소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과제에 KC코트렐사(社)와 공동 투자했다. 137억원의 실증 연구비 중 정부가 68억원을 부담하고 발전 5사와 KC코트렐이 69억원을 투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남부발전의 하동화력 3호기에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개발한 '건식 고체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회수공정기술'을 적용했다.

발전 5사는 오는 12일 준공식 개최 후 2012년까지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각 발전사들은 1년간의 실증이 끝나면 선택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창근 연구원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부식성이 없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만든 동그란 미세 입자가 플랜트에서 돌아가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계 최초의 건식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연구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하동화력에 적용한 플랜트는 연구소에서 실증한 규모보다 20배 가량 크기 때문에 실제 발전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1년간의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를 검증한 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동화력 3호기에 설치된 포집 플랜트는 0.5MW급으로 대부분의 발전소가 300~500MW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약 600~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 건식 포집'이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돼 기술 수준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CCS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습식 흡수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가격이 높아 저렴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증단계에 대해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아직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고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발전소에 설치하겠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CCS 기술은 꼭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설치 기간이 만만치 않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년간의 실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남부발전은 이 기술의 용량을 20배 늘린 10MW 규모의 설비를 하동화력 8호기에 설치키로 하고 현재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 관계자는 "1년간 하동화력 3호기에서 실증한 플랜트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동화력 8호기에 장착해 3호기와의 비교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2012년 하동화력 8호기에 10MW 규모를 설치할 경우 결과에 따라 향후 삼척화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CS기술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하고 한전 및 5개 발전사가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이투뉴스 (2010.2.8)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대리 배수정 (soojeong@kcgreenholdings.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킹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아부다비 정유 플랜트 착공  
(GS-SK건설·삼성엔지니어링 공동)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수주한 총96억5000만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루와이스 정유공장 프로젝트 계약식을 체결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대우건설 등 4개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UAE 국영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의 자회사인 타크리어(Takreer)가 지난해 발주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 공사 계약식을 가졌다.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루와이스 공단의 정유생산 능력은 현재 하루 42만배럴 규모로 2014년 초 확장 공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하루 생산량이 40만배럴 늘어난 총 82만배럴로 늘어나게 된다.



◀윤석경SK건설 부회장(오른쪽)과 타크리어사 자셈 알사예그 사장이 1일 아부다비에서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총 100억달러 규모로 발주된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 공사 총 7개 패키지(항만시설 공사 포함) 가운데 5,6번 패키지를 제외한 5개 프로젝트를 96억4700만달러에 '싸쌈이' 수주해 화제가 됐다. 패키지5는 부지정리 공사로 현지업체가 수주했고, 시설동 등을 짓는 패키지6의 수주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GS건설이 수주한 패키지2는 공사 금액만 31억1000만달러로 UAE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 국내 건설업체가 따낸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다.

패키지7은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의 원유 및 제품유를 수출입하는 항만 시설 공사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공사를 맡은 패키지3은 전체 플랜트에 물과 가스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시설 공사다.

SK건설의 패키지1은 원유정제설비와 주변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다.

대우건설의 패키지4는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 안에 총 76기의 저장탱크로 구성된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2010-03-03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신수경 (sookyeong@kcgreenholdings.com)

STX, 가나서 유전·가스전 개발 등 사업확대  
(강덕수 회장·마하마 부통령 협의)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방한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부통령과 만나 가나 현지의 유전·가스전 개발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가나에 주택 20만채(100억달러 규모)를 짓기로 합의한 데 이어 STX의 추가 프로젝트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마하마 부통령은 3일부터 이틀간 STX엔진 창원공장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를 방문한다. 따로 강 회장과 만나 가나 현지 사업 확대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STX와 가나 정부는 지난해 말 계약한 주택 건설 사업 외에도 △주빌리 해상광구 유·가스전 개발 △오일 터미널 건설 △정유 플랜트 확장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을 것으로 전해졌다. STX와 가나 정부 공동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가나 주택 건설 사업 외에도 자원개발 등을 묶어 패키지 딜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2010-03-03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신수경 (sookyeong@kcgreenholdings.com)

환율시장정보

3월 미달러, 상승세 접고 소강상태

달러/원 주간 Chart (by Reuters)



2월 환율은 월초 남유럽 재정적자 우려와 달러강세로 1170원대 진입하며 120일이평선 테스트에 나섰으나 그리스 구제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네고로 추가 상승은 제한되며 대외뉴스 따라 1140원~1180원의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다.

3월 환율은 유로존을 둘러싼 신용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EU의 지원 기대, FRB의 저금리 기조 유지 확인 등으로 글로벌 달러의 추가 상승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위안화 절상 기대, 외국인의 한국시장에 대한 선호 등으로 원화의 주요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유동성 흡수에 따른 미달러의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외국인 주식 배당금 역송금 수요, 당국의 개입 경계 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해 달러/원 환율은 거래범위 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1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 급락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은 대외 변수에 대한 면역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록 역외의 숏커버로 한때 120주 이평선을 상향돌파 하기도 하였으나 증시가 안정되자 환율도 재빨리 하향 안정되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원화가치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성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듯하다. 유로화는 그리스뿐 아니라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일괄 지원이 쉽지 않고 구제를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재정감축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고, 이는 정책적인 유로화 약세 용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3월중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 구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약재 노출 및 유로화 과매도권 진입 등으로 유로/달러는 제한적 반등이 예상된다.

FRB의 재할인율 인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으나 본격적 긴축이 아닌 비정상적인 긴급 조치의 해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FRB의 자산시장 부양 의지를 고려할 때 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및 유로존의 재정적자 문제는 미달러에 지지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가와 미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도 종종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5일 중국 전인대와 4월 미국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빠르면 3월중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자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한 긴축 행보를 펼치고 있으나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 통화로 꼽히는 호주달러와 원화는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긴축에도 중국 성장 위축 우려는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오는 배당시즌에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총 3조 1776억원의 배당금 중 올해 3,4월에 달러로 환전될 물량은 약 20억불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은 두 달에 걸쳐 분산 처리되고, 외환시장을 크게 움직일만한 규모는 아닌 만큼 역송금 수요는 환율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원화의 상대적 강세 여건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 증가로 달러/원 환율 향방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경기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증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주요 이평선들이 1155~60 원 사이에 결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방의 결과에 따라 중기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1160원대 후반으로 내려온 120일 이평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5주 이평선의 20주 이평선 상향 돌파 성공 여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출처: 삼성선물 Monthly outlook 2010.02.26

KC 그린홀딩스 재경팀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CONTENTS

###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원자재 가격 동향

### 1. 열연유통, 포스코가격 인상설 확산중

열연 유통시장에 포스코 가격 인상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포스코가 톤당 10만원 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인상설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톤당 15만원 인상설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원료가격 협상 등이 끝나지 않아 인상폭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광산업체들의 제시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시장의 포스코 열연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원재료 가격의 상승 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일본 고로사들이 한국향 열연 수출가격을 톤당 200달러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유통업계가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높음에도 일본 철강사들이 열연은 700달러 이상 냉연은 800달러 이상에 2분기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포스코 공급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3월초 시장에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스틸데일리 2010-03-02일자 요약

### 2. 냉연업계, 쌍끌이 호조 "즐거운 비명"



냉연업계가 판매 호조와 수출가격 상승 등으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판매를 기록했다. 유니온스틸의 1월 냉연도금재 판매는 13만 8,530톤으로 전월비 2%증가, 현대하이스코는 2개월 연속 처음으로 33만톤 대 판매를 기록했다. 그밖에 동부철원은 1월 판매가 전월비 5%, 포스코강판은 전월비 3.7% 증가했다.

판매 증가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견제용 수요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수요는 신년 들어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 떠돌고 있는 가격인상설로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판매호조의 원인이다. 이러한 판매 호조세는 1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냉연사들의 수출가격은 1월적의 경우 냉연강판(CR)이 톤당 650달러, 용융아연도금강판(GI)이 700달러, 컬러강판이 830달러 수준이었으나, 2월적은 CR 680달러, GI 730달러, 컬러강판이 880달러, 3월적은 CR 740달러, GI 820달러, 컬러강판이 920달러로 대폭상승했다.

스틸데일리 2010-02-16 일자 기사 요약

### 3. 봉형강 메이커, 원가상승 "속앓이"

철근 형강 등 봉형강 메이커들이 원가상승으로 속앓이 중이다. 2월 대보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정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강사들은 작년 11월 부터 시작된 철스크랩 가격 상승분을 아직 제품가격에 10% 전가하지 못한 상태이다. 철스크랩 가격은 톤당 9~10만원 가량 상승했으나, 철근 가격은 톤당 5만원, H형강 가격은 톤당 7만원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제강사 내부에선 3월 제품가격 인상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봉형강 시장의 판매가 부진하지만 원가 상승폭이 제강사가 떠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스틸데일리 2010-02-19 일자 기사 요약

### 4. STS 3월 유통가격 인상 초읽기

- 니켈가격 강세로 국내의 가격인상 움직임
- 정상마진 확보 위해 대다수 업체들 가격인상



스테인리스 유통업계가 가격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일 니켈이 2만 1천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니켈 가격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오피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포스코의 3월 출하분 톤당 10만원 인상으로 정상마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내 대다수의 대형 유통업계는 정상마진 확보를 위해 판매 가격을 kg당 100원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업체들 역시 가격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오늘부터 3월 본격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문의가 많지는 않으나, 수요가 대부분 니켈가격의 상승과 포스코 가격인상 등으로 유통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니켈가격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가격저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틸데일리 2010-03-02일자 요약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킹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1



KCVN 영동균지사장. 뒤에 보이는 것은 강물을 담아올린다음 대나무 수로로 각 눈에 강물을 운반해 주는 대나무 수차이다.



호치민(HO CHI MINH)



오토바이족



**KC Cottrell Vietnam Co., Ltd.**  
**KC베트남 법인을 소개합니다!**

Chuc mung nam moi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동균입니다. 전세계에 있는 많은 KC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더욱이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이렇게 베트남 법인의 가족과 베트남을 소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곳 베트남 수도 하노이도 거리 곳곳에 복숭아꽃과 노란 매화 나무들 그리고 풀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구정이 되면 이러한 나무들을 집과 사무실에 두어 복을 부르고자 합니다.

2007년 초, KC베트남 연락사무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파트 내의 작은 사무실에서 하노이 공대 출신 엔지니어 이(Y)와 하노이 공대 기술영어과 출신 휘엔(Huyen)의 도움을 받으며 베트남 환경장비 시장을 조사하고 KC법인 설립을 진행 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엔지니어 이(Y)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휘엔의 통역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베트남 법인의 준비를 하여 2008년 11월, 어렵게 100% 외투법인의 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엔지니어 이(Y)의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었지요.)

2009년 2월 이태영 사장님을 비롯한 본사의 임원들을 모시고 베트남 법인의 개업식을 하면서 현지직원들의 꿈을 들어 보았습니다. "모두가 베트남에서 제일가는 환경보호 회사를 만들자"고 다짐을 한것이 어제 같은데 이미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문을 맡고 계신 하노이 공대의 옥 교수님을 포함해 11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기에 중공업 산업의 발전을 절실히 필요 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 및 제철소 그리고 원유 정제소들의 계획이 완료되어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열정을 갖고 베트남에서 제일가는 환경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해 11월 말에는 이곳 하노이에서 KC본사의 임원 워크샵도 개최 되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베트남 시장을 현지에서 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베트남 직원 모두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이제 막 생겨난 조직입니다. 본사와 여러 관계사의 경험을 이곳 현지의 직원들에게 잘 전달 한다면 훌륭한 인재와 더불어 베트남 환경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현지에서 생활을 하며 베트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인상적인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어디를 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호치민의 동상, 호치민은 베트남 공산당의 창건자이고 해방된 조국의 주석이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정략가이자 영감을 불어넣은 민족해방의 상징이고, 또한 그는 소박하고 온화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으로서 50%는 소련의 레닌이고 50%는 인도의 간디로 알려져있습니다. 호치민은 그들을 역동적으로 결합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인민들이 존경하는 호치민은 그들의 신이자 친근하게 느끼는 아저씨 같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저도 호치민 아저씨의 검소한 생활과 낙천적인 성격을 가까이서 배우려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둘째는 수 많은 오토바이들,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을 겨우 넘는 환경이어서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입니다. 오토바이의 활용 방법도 다양하여, 젊은 연인들은 오토바이 위에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125cc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닙니다. 한 여름에도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베트남 여인들이기에 복면을 하고 얇이 큰 선글라스를 끼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한다...

셋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길거리의 꽃 파는 아가씨들...

베트남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제일 높은 곳은 언제나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매일 두 번은 꼭 제단에 많은 꽃과 과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평일에도 꽃을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에 꽃을 가까이 합니다. 장미꽃 한 다발(약20~30송이)에 15,000 베트남동(약900원) 정도 이고요. 참고로 베트남의 국화는 연꽃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 모자...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트남 시골을 여행하게 되면 30~40년 전의 우리의 시골을 다시 보는 느낌입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가족 중심적이기에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민족, 여러 가지 예전의 한국과 비슷하지만 많은 면이 한국과 다르기에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가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I joined with KC Vietnam (KCVN) from the early time and I have witnessed the hardness of the beginning state and gradually growing up with new staffs coming and coming. Now, KC VN becomes the bigger family with 10 people. We work and enjoy together, proud of introducing some of our images

**Our Events**

*KCVN before establishment:* This seemed the most difficult situation when we started working in a poor furnished apartment with only 3 people, where every activities and transactions were limited as we had no legal establishment.

*Office moving:* On July, with the expanse of personnel and the lucid decision of our Director Board of KC Cottrell to set up KCVN in Hanoi, we had chance to move to more luxurious than before office with better equipments.

*Opening Ceremony:* Our Investment Certificate finally came (on Nov 28<sup>th</sup> 2008, just one day after the birth day of KC) as a hard result for our long term (6months) effort to overcome cumbersome administration procedure.

The baby KCVN gained much attention by KC's Director Members and representatives to celebrate for us in our birth day.



**Our culture**

- "Make the good harmony": That is our own motto, so team work and team activities are appreciated, all staffs always enjoy together in working, eating, drinking, singing...
- Sport: We have one tennis club, which is attended by every staffs
- Hospitality and hardworking: This is nature of Vietnamese recognized by many people in the world.



**Our Activities**

- Contract signing ceremony between KCVN and Lisemco for Electrostatic precipitator fabrication and transportation package of VN2 project.



▲ Vice President Cho Sun Young and President of Lisemco Tran Viet Khanh



▲ President of Lisemco Tran Viet Khanh and our advisor professional Luong The Ngoc Khanh

- President Mr. T. Y Lee visited Lisemco (Our partner)



- Scholarship Award seminar in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at February 2, 2010



## INTRODUCTION ABOUT OUR MEMBERS

### Dao Trong Hien (Technical manager)



Hi... Every body, my name is Dao Trong Hien, but you can call me Bamboo because that it is my nickname in KC Cottrell Vietnam. I am proud of becoming one of KC Cottrell members from March, 2009 in Engineering team.

My favorite idiom is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Until now I try my best incessantly for work and hope that I will have bright future with KC Cottrell Viet Nam. I'm born and grew up in Hanoi-the Vietnamese capital where is going to preparation big celebrate 1000 years old in October 10<sup>th</sup> 2010. I am really happy and welcome you to my country for attending and cheer with us at that time.

Mobile: +84 937 580 880  
Email: [hien@kc-cottrell.com.vn](mailto:hien@kc-cottrell.com.vn)

### Lai Nhu Y (Marketing manager)



Hi everybody.  
My name is Lai Nhu Y, I was born in Hanoi Vietnam on January 30<sup>th</sup>, 1982  
I graduated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HUT) in 2005 with major thermal energy equipment and I study in National Economic University from 2006 to 2007.

I had 02 years experience working as a designer and manufacture for industrials boiler, heat exchange equipment, and central heat supplying systems.

I am very happy to working in KC Cottrell, I believed that KC Cottrell become leading company in the word about environment.  
Vietnam is peaceful, friendly and potentiality country, Well come to Vietnam.

Please contact me:  
Mobile: +84 98 890 2526  
Email: [laihuy@kc-cottrell.com.vn](mailto:laihuy@kc-cottrell.com.vn)

### Duong Thi Huong (Administration assistant)



I am now studying the second year in an economic university. 6 months ago, I started doing a part-time job in KCVN. I feel very happy and gather a lot of experience, especially from Mr.Nguyen Thanh Long. For the next time, I will be hardworking, responsible for the job so I hope after graduation, I can be officially employed by the company.

Mobile: +84 975 321 404  
Email: [thuhuong@kc-cottrell.com.vn](mailto:thuhuong@kc-cottrell.com.vn)

### Dang Thanh Huyen (Procurement manager)



I am now the procurement manager.  
I have less experience in this field so during my working time, I have been trained a lot from my colleagues, especially from Mr.Yeom Dong Gyun and Mr.Oh In Seok. Until now, I have been more familiar with the job. Despite some of my shortcomings, I will try my best to finish my job with the highest efficiency

Mobile: +84 987 822 203  
Email: [huyendang@kc-cottrell.com.vn](mailto:huyendang@kc-cottrell.com.vn)

### Nguyen Thanh Long (Plan manager)

After graduation in Korea, I have started my job in KCVN in 2008. For the past two years, KCVN has overcome many difficulties in operation, penetration in Vietnamese market. Until now, KCVN has gradually established many important relationships with EPC contractors, owners and partners. As being appointed as the plan maker for the next time, I shall build the action strategies and supervise them well to meet the expectations of all colleagues.

Mobile: +84 904 230 170  
Email: [thanlong@kc-cottrell.com.vn](mailto:thanlong@kc-cottrell.com.vn)

### Dao Do Cuong (Electrical Manager)

Hi everybody! I'm Dao Do Cuong. I'm a member of KC Cottrell Vietnam family. I'm taking care of Electrical and C&I Engineering in the company. I have 4+ years experience in Power Plant projects and I'm associated with KCVN from November 9<sup>th</sup>, 2009. I come from Bac Giang highland province which is the northeast of Ha Noi capital. I like to play sports, especially soccer and I'm a fan of MU club. I'm also fond of listening country music and watching T.V in the free time.

Mobile: +84 984 316 386  
Email: [daocuong@kc-cottrell.com.vn](mailto:daocuong@kc-cottrell.com.vn)



### Hoang Huy Binh (Mechanical engineer)

Hi, I'm Hoang Huy Binh. I'm from Nam Dinh, it is a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I'm a member of KC-Cottrell Viet Nam. I'm taking care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company. I have 3 years experience in Refinery plant and 1 year experience in Hydropower plant. I'm associated with KC-Cottrell Viet Nam from October 2009. I really love my work. I love sunflower and my hopper is always working towards perfection.

Mobile: +84 973 499 365  
Email: [hhbinh@kc-cottrell.com.vn](mailto:hhbinh@kc-cottrell.com.vn)



### Nguyen Quang Nghia (Financial manager)



Hi everybody! I'm Nguyen Quang Nghia. I'm an accountant. I'm a member of KC Cottrell Vietnam family. I have 5 years experience. I joined with KCVN from July 4<sup>th</sup>, 2009. I'm married 2 years ago.

Now, I just have a baby. My family sometimes goes to the country side at the weekend. I like watching football and reading book when I have free time.

Mobile: +84 988 833 148  
Email: [nghiakt@kc-cottrell.com.vn](mailto:nghiakt@kc-cottrell.com.vn)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 KC그린홀딩스 김정완 전무님 댁을 다녀와서 - KC그린홀딩스 단합대회



KC그린홀딩스단합대회

지난 2월 19일, 홀딩스 단합대회라는 명목 하에 “한번 모여보자!”라는 마음으로 김정완 전무님 댁에서 지원, 기획, 재경팀의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3박4일간의 감사일정 마지막 날인지라 의당 감사인들과 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날이었지만 아쉬워하는 감사인들을 뒤로한 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

홍대에서 대치까지의 길은 재잘대는 저희를 즐겨보시던 서울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길지만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마음은 무겁게 양손은 가볍게!”의 생활에서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로 변해가는 저희 스스로를 보면서 진정한 사회인이 되어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무님~ 리치몬드 쿠키는 맛있게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 )

먼저 도착한 8층 식구들이 만들어 놓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발걸음으로 전무님 댁에 도착한 저희는 먹어달라는 듯한 자태로 셋팅되어 있던 음식들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와 식사부터 후식까지 풀세트로 구성된 알찬 식단을 준비하신 전무님과 사모님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던 저에게 곳곳에 놓여있는 가족사진은 특히나 인상깊었습니다. 가족의 일대기가 보이는 듯한 사진들을 꼼꼼하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즐기는 사이 피곤함을 느낄새 없이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손님맞이에 고생하신 전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강아지와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여주희씨, 사진 찍고 사라진 강준기 선임님, 흥기은씨, 왕정일씨, 다소곳한 매력쟁이 신수경씨, 이보람씨, 항상 8층을 아우르는 포스를 갖고 있는 배수정대리님,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인 윤제연 선배님, 평소 함께 할 수 없었던 8층 분들과 보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지면에 즐거웠던 기억을 모두 적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늦은 시각 데려다 주시느라 고생하신 이상민 팀장님께 감사 드리며 홀딩스 단합대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려고 하는지 추위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모두들 유의하시면서 2010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 인턴사원의 KC코트렐 걸작품 견학 후기 - 깨끗한 세상을 위한 설비를 눈앞에서 보다.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3

내가 현재 일하는 이곳 발전민수사업부에서 인턴을 한지 이제 갓 1개월이 지났다. 삼천포 화력이나, 제주내연 등등의 프로젝트를 해 왔던 자료들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피어가이드의 도움으로 도면이나 PPT를 볼 수 있었지만, 사실 모니터의 픽셀에서 그려지는 KC코트렐의 설비들이 과연 실제로 어떨 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오늘은 드디어 여수 현장 견학이다. 안타깝게도 날씨가 좀 껄다. 생각지도 못한 비행기 편 이용에 다른 인턴들 또한 들떠있다. 여수공항에 도착하니 차 두 대를 이용해서 마중 나오신 광양사무소의 조상춘, 최현규 선임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여수 KCES방문을 위해 공업단지를 지나며 보았던 거대한 공장들을 보며 '분주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철이 되었던, 화학제품이 되었던, 에너지가 되었던 간에 인간이 손을 대는 활동에는 모두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가는 KCES는 이러한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다. 바로 같은 부지에 있는 촉매 재생 공장도 둘러 볼 수 있었는데, 생김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한 공장 내부가 인상 깊었다. 인턴교육 때 어설픈게 들었던건만, 촉매장치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이곳에서 실제로 보니 이해가 잘 된다. 마치 안경점에서 초음파 세척기로 안경을 닦고 안경을 보면 매우 깨끗하듯이 이곳에서 재생된 촉매들은 입고 당시 촉매 상태에 비하여 깨끗이 세척되어 나온다.



소각로에서 나



소각로에서-왼쪽부터 김소희, 이준상, 이호영



여수 공업단지



재생 중인 촉매



화재장터

다음 날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소결 배가스 청정 설비를 견학하게 되었다. 배가스청정설비까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둘러본 주변 모습은 흥미롭게 다가왔다. 곧 도착하여 맞이하게 된 SCRT타워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선임님과, 조선임님의 인솔하에 위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내려 올 수 있었고 백 필터가 위치한 곳도 들어가서 볼 수 있었다. 거대한 크기에 압도된 순간 든 생각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보다는, '이거 돈 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커다란 것이 열을 뿜으며 곧 배기가 될 가스들을 정화한다. KC코트렐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학교에서 기계과 전공 수업으로 로봇이나, 제품제작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잦았다. 기껏해야 조그맣고 단순한 기능을 위해서 5명 남짓 조원들이 3개월 내내 밤새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사실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것이 내가 했던 프로젝트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동교동 사옥에서 뵈, 몇 안 되는 분들이 이런 거대한 것들을 척척 해내신 거라고 생각하니 감동과 함께 소름이 짝 들었다.

방문 후, 선임님들께서 준비하신 맛집 기행 또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견학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광양현장에 가면 회" 라는 말을 인턴생활하면서 따갑게 들었던 터라, 꼭 맛보고 싶었다. 물론, 최현규선임님은 나의 생각을 정확히 읽으셨다. 광양회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며, 현지 특산물인 재첩국 또한 별미였다. 그때 고들고들하고 찰진 감성동회를 한두 점 먹으면서 생각한 것이 아직도 머리에 선하다.

'우리들이 깨끗한 자연을 보존해야, 이런 맛있고 신선한 먹거리도 후손에게 줄 수 있겠지?'

▷ 2010년 상반기(제4기) 인턴들에게 물었다!

1. KC코트렐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습니까?
2. 우리 회사가 뭐 하는(무슨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업무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4. 회사생활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있다면?
5. 회사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6. 우리회사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점, 잘 안되어있다고 생각하는 점
7. 우리회사가 고쳤으면 하는 점 혹은 바꿨으면 하는 점
8. 누가 제일 밥을 많이 사줬나요? 혹은 잘 챙겨줘서 감동받은 일이 있다면?
9. "KC코트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0. 인턴프로그램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11. 인턴 인기투표! 인턴 생활하면서 "이 친구 정말 괜찮다" 했던 친구 있으면?

- ① 취업 포털사이트
- ②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공장에 환경설비 설계를 하는 회사
- ③ 짧지만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일의 진행 절차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알게 된 것 같음
- ④ 회식자리
- ⑤ 기본적인 업무들..프린트, 펀치 뚫기가 은근히 양이 많아 조금힘들었음...
- ⑥ 복리후생이나 회사사람들을 잘 챙기는 점 / -
- ⑦ 일반인들도 잘 알 정도로 더욱 더 멋지고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음
- ⑧ 배수정 대리님, 맛있는거 많이 사주셔서요-
- ⑨ 친환경기업
- ⑩ 일주일 혹은 이주일에 한번 씩 인턴 회의시간을 통해서 인턴끼리도 의사소통 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 ⑪ 이준상, 정말 야무진 친구

- ① 학교 취업 포털사이트
- ② 플레트 대상 환경설비 전문회사
- ③ 사내조직구조 살펴보기, 회식문화, 유망사업분야에 대한 가능성 탐색
- ④ 멋진 사람들과 만나는 일
- ⑤ 잦은 회식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음
- ⑥ 전사가 가족같은 분위기/큰회사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인식
- ⑦ 사원들의 자부심이 더욱 고양되었으면 합니다...
- ⑧ 배수정 대리님
- ⑨ 집진기
- ⑩ 임원분들과의 조찬식사
- ⑪ 김소희, 유쾌한 친구예요

- ① 학교 내 취업정보 기관의 공지를 보고
- ② 환경설비 회사
- ③ 관심을 갖고 있는 플레트 업계의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경험할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음
- ④ 자취생에게 과분한 점심, 저녁식사로 두 달간 체중이 불었음
- ⑤ 집이 멀어서 출퇴근간에 출퇴근이 힘들었던 것 외에는 없었음
- ⑥ Flexible time적용으로 오전시간 활용/중간급(대리,과장) 직원부족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 ⑦ -
- ⑧ 피어가이드 이광무 선배님, 매일 무얼하고 있는 지 체크해 주시고 밥 먹었는지 물어봐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음. 다른 모든 분들도 친절하셔서 감사했음
- ⑨ 이태영 사장의 환한 미소 ^^
- ⑩ 어떤 과제를 주어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한 수행, 해결능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음
- ⑪ 박춘매, 성실합니다.

- ① 인터넷 취업 포털사이트
- ② 환경관련 플레트 업체로 CO2포집이라는 신성장 분야에 있어 여러 관련된 우수 설비들을 설치하는 회사이며 사업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를 준비하는 기업
- ③ 현장견학, 임원분들과의 식사, CC20교육, Autocad교육, 다양한 업무보조
- ④ 임원분들과의 식사-학생선분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좋은 기회였고 길잡이가 될 좋은 말씀들을 얻었습니다.
- ⑤ -
- ⑥ 상하구조의 유연화, NET인증기술, 코트렐로 시작되는 전기집진기의 대명사 / -
- ⑦ -
- ⑧ 피어가이드 박성용사원이 최고^^
- ⑨ 환경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업, 지구를 정화시킨다는 기업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기업
- ⑩ 발표에 있어 한 달에 한번 주제를 가지고 회사에서 선정, 자유선정..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 ⑪ 이준상, 막내이면서도 정말 똑똑하게 자기역할을 해내는 친구,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모두 다 기억해내 감초역할을 잘 해줬음

- ① 학교취업정보 홈페이지
- ② 공정 배가스 처리설비, EP회사
- ③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목표를 분명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
- ④ 맛있는 것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았음
- ⑤ -
- ⑥ -
- ⑦ -
- ⑧ 이장미 선배님, 아침 안먹고 온다고 매일 샌드위치 나눠주심
- ⑨ 회사 로고가 가장 먼저 떠오름, 하늘색 초록색, 흰색, 자주색이 섞여 깨끗한 환경을 잘 표현하는 느낌임
- ⑩ 인턴, 피어가이드가 다양하게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음, 중간발표를 간단하게나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⑪ 이호형, 분위기 메이커, 생긴 것과 다르게 몸개그가 뛰어난/ 왕경하

- ① 인터넷
- ② 환경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 및 설치, 주요설비: 집진기 탈황 탈질설비
- ③ 최종발표를 준비하며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고 P&ID를 수정하는 보조작업을 하면서 P&ID 보는 법과 간단한 CAD 쓰는 법을 배웠음
- ④ 피어가이드의 설명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배웠고 맛있는 밥도 정말 좋았습니다.^^
- ⑤ 업무를 주지 않을 때 앉아있기가 힘들었음
- ⑥ 복지가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이 좋은 것 같음, Flexible time제가 좋음
- ⑦ 엔지니어를 좀 더 세련되고 멋있게 고치면 좋겠어요, 엔지니어링 회사 냄새가 너무 나서 딱딱한 느낌
- ⑧ 서동영 전무님, 배수정 대리님, 식사하며 얘기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어요
- ⑨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⑩ 한 달 후 부서이동, 전공과 관련된 다른 부서로도 이동했으면 좋겠음
- ⑪ 홍승일, 재미있고 재치있음, 사장님 포스도 풍기고....



KC코트렐 제4기 인턴 김소희, 박춘매, 이호형, 이준상, 황경하, 홍승일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웍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4

### INVALL사 소개

INVALL SA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로서 혁신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한다. 1965년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분야등을 중점적으로 하고있다.

INVALL SA는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했으며 2,000MW이상의 풍력발전의 경험이 있다. 약 40 여명의 직원이 개발, 엔지니어링 공공 부문, 엔지니어링 민간과 국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사는 Reus에 위치해있으며 Tortosa와 Lleida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각 부서의 역할로는 사업개발 부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방향을 잡는다.  
공공 사업 기술부서는 공공 투자사업 부문과 정부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 사업 기술부서는 산업설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외사업 부서는 스페인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몇 년간 INVALL은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요청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술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것은 또한 자사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스페인 및 해외에서 재생 에너지 분야의 모두 다른 파트너와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장했다.

INVALL은 직원의 복지를 늘려 감사에 뜻을 표현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6년 회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INVALL 연간 매출액의 2%를 복리 후생에 지출하였습니다, INVALL은 측정가능한 직원들이 개인, 가족 생활, 출산 휴가, 공휴일, 전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익의 5%를 외부 여러 재단과 함께 복리후생비로 책정하였다.

INVALL은 직원의 복지를 늘려 감사에 뜻을 표현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6년 회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INVALL 연간 매출액의 2%를 복리 후생에 지출하였습니다, INVALL은 측정가능한 직원들이 개인, 가족 생활, 출산 휴가, 공휴일, 전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익의 5%를 외부 여러 재단과 함께 복리후생비로 책정하였다.

KC그린홀딩스 기획팀 홍기은 (kieun@kcgreenholdings.com)



pic. CEO & Facilities